

# 울주군, 두현저수지에 150억 원 투입 '명품 수변공원' 조성

✎ 박흥식 기자 | ⓒ 승인 2026.07.28 16:15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내년 준공 목표  
산책로·교량·정원·휴게시설 조성... 주민 휴식공간·지역 관광명소 기대



울주군,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사진=울주군]

[이뉴스투데이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청량을 두현저수지를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교량, 정원,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28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김상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이연택 농어촌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청량읍 두현저수지 일대에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수·휴식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변을 따라 걷는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간 간 연결성을 높이는 교량과 정원, 휴게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공사 발주와 감독 등 사업 시행 전반을 담당한다. 다양한 기술인력과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은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고, 양 기관은 공사 과정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집행과 정산,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현저수지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친수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하겠다”며 “주민은 물론 많은 방문객이 찾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